Pfizer, 제네릭 의약품 국내시장 진출

항암치료제 <젬시타빈> 식약청 허가 획득 ... 제약 시장 판도변화 예상

세계 제약기업 매출 1위인 화이자(Pfizer)가 국내에 제네릭(복제) 의약품을 처음으로 내놓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들의 텃밭으로 여겨지고 있는 제네릭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최근 난소암과 유방암, 폐암, 방광암 등의 항암치료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일라이릴리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젬자를 본떠 만든 젬시타빈 200mg, 1000mg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획득했다.

따라서 국내 제네릭 시장에 처음 진출하게 됐으며, 국내 항암제 사업부에서 기존의 항암제와 함께 젬시타빈을 판매할 계획이다.

항암제 사업부 김선아 전무는 “항암제 분야는 생명 안전과 관련돼 품질이 매우 중시되는 분야이기에 퀄리티 제네릭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며 “기존의 항암 포트폴리오에 제네릭 제품을 추가해 고품질의 다양한 치료 옵션을 의료진과 환자에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인 화이자의 제네릭 출시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한국화이자제약은 허가가 난 항암제 제네릭 외에도 심혈관계와 중추신경계질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 영역의 제네릭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국내 제약 시장의 판도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다국적 제약기업의 제네릭 진출이 처음은 아니다.

노바티스(Novartis)에 인수된 산도스(Sandoz)가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으며,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도 한독약품을 통해 제네릭 제품을 출시했다.

한 제약기업 관계자는 “신약 개발에 한계를 느낀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잇따라 제네릭 시장에 눈길을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거대 다국적 제약기업의 제네릭 시장 진출이 앞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승패는 영업력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25>